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Spousal Relationship's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조혜숙, 최수일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Hye-Suk Cho(hsj61@korea.com), Soo-Il Choi(sichoi47@hoseo.edu)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부부관계(친밀소통, 애정표현 및 의사소통)가 심리적복지감(긍정적, 부정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및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유배우자들로 설문지는 500부를 배포하여 475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한 46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 회귀분석, t-test 및 분산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친밀소통, 애정표현 및 여가공유가 긍정적 복지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여가공유를 제외한 친밀소통 및 애정표현이 부정적 복지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등에 따라서 친밀소통, 애정표현 및 여가공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긍정적 복지감 및 부정적 복지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노년기 부부관계 | 심리적 복지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pousal relationship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and to find differences in the spous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For the study, 475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e men and women residents with their spouses living in Seoul. The 464 collected data excluding incomplete 11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regression, t-test and, ANOVA with SPSS 17.0.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intimacy-communication, expression of affection, and leisure-sharing showed a positive effects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well-bing, and intimacy-communication and expression of affection affect negatively on the negative psychological well-being, but not leisure-sharing.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pousal relationship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actors.

■ keyword : | Spousal Relationship Eelderly | Psychological Well-being |

1. 서론

노년기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노인가구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노인가구 유형에서도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가 1994년에 26.8%에서 1998년에는 27.9%, 2004년에는 34.4%, 그리고 2008년은 47.0%로 증가되었다. 또한 노인들의 유배우자 비율도 지난 14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에 47.9%에서 2008년에는 64.5%로 증가하였다 [1]. 이처럼 향후 노년기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도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바람직한 노년기 부부관계는 정신적 동반자로서 심리·정서적인 지지를 강화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부부 간에 관심과 애정을 교류하고, 상호 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여가생활 등을 공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높일 수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5].

노년기 부부생활에서는 남성들이 은퇴하여 사회활동이 축소되고, 인간관계가 외적인 관계에서 내적인 관계로 전환되어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나, 변화하는 관계에 서로 익숙하지 않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실제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드물고, 부부 상호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을 야기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이 낮아 애정관계에도 긴장감이 발생한다[6][7].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의 추세[8][9]는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부부간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08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노인의 비율이 81.7%로 확인되고 있다(‘매우 만족한다’ 14.4%, ‘만족하는 편이다’ 67.3%, ‘그저 그렇다’ 14.9%). 이러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년기 부부들은 노후생활을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으나,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황혼이혼 등의 문제점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를 구성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유배우자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부 간의 여가공유, 동반자적 삶, 역할의 균등, 의사소통, 부부갈등, 상호지지, 역할공유와

분담, 성생활만족도 등의 단편적인 변인들과 삶의 만족 [10][11], 결혼의 질[12], 결혼적응 또는 결혼만족 [3][13-16]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변인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희소하다.

특히 노년기를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다룬 연구들은 성역할태도, 가사분담[17],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18],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19], 부부갈등 영역[5]등과 관련된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졌고, 노년기 부부의 관계적인 요인과 심리적 복지감을 다룬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또한 노년기는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특히 예비노인세대에 대해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한 구성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들 요인들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변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노년기 부부는 물론 예비노인 세대들에게 부부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연구결과를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관련 향후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 변인과 심리적 복지감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노년기 부부관계 변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노년기 부부관계 변인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고찰

1. 노년기 부부관계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로서 절망감과 통합감을 이루는 시기이다[20]. 노년기는 Levinson [21]의

발달단계에 따른 주요과업에서 60-65세를 노년기의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노인은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원진노령연금[22]을 수령하는 나이인 60세, 생물학적으로는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과정에 있는 자[23]로 구분한다. 또한 노인의 학문적인 구분에 있어서 Brody[24]는 연소노인(60-64세), 중고령노인(65-74), 고령노인(75이상)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노년기는 신체·정신적 기능이 약화되고,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시기로서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대책 마련,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유지, 새 생활방식의 시도, 부부관계의 유지개선, 친인척 간의 유대감 형성, 죽음의 수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25]. 노년기 부부관계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은 그 하위요인으로 친밀감, 의사소통, 애정관계 그리고 여가공유 등을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부부 간의 친밀감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 결속, 일체감과 같은 느낌을 포함하며[26], 부부가 모두 건강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여 친밀함을 느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 박은아와 이정우[28]의 연구에서는 부부 간 친밀감과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인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부부 간 친밀감이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이 검증되었다. 김경신과 이선미[29]의 연구에서도 서로 친밀한 부부일수록 관계에 생동감이 있을 뿐 아니라, 갈등 정도가 낮고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ternberg[26]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 간의 열정은 결혼초기 보다는 강하지만 친밀감은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박의순[30]의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혼부부들 보다는 노년기 부부의 친밀감의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란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든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이다. 유시순[16]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 간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

록, 성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윤로와 유시순[3]은 노년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고, 조혜경[11]은 노후의 결혼생활 관계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역할의 균등과 적절한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노부부에게는 자주 대화하는 것이 의사소통 증진에 도움이 되고[31], 상호 의견일치를 이루면서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배우자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32].

부부 간의 애정관계란 솔직한 애정표현을 자주하고, 서로 성적으로 만족하며, 상호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노년기에는 도구적 특성보다는 정서적 특성이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정서적 친밀감, 상호 간의 배려, 성적친밀감 등 부부 간의 정서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33]. 이해자와 김윤정[34]은 부부관계에서 사랑과 성은 노년기 삶의 질과 생활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또한 이윤로와 유시순[3]도 노년기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생활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부부 간의 여가공유란 일(노동)외의 남은 시간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다. 신상식과 최수일[35]은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가족(부부)과 함께 참여할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이기영 등[14]의 연구에서도 부부가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로·유시순[3]도 사회·여가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권오균과 허준수[4]의 연구에서도 공동 여가활동 빈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2.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이다[36]. 심리적 복지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하나는 주로 긍정적인 정서를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연구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상반된 개념으로 보고 양극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먼저, Wood와 Rhodes[37]는 긍정적 복지감(positive well-being)을 행복,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전반적인 평가(general evaluation)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Diener[38]는 심리적 복지감을 행복(happines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positive affect)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박영준[39]은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여가만족 및 심리적 복지감과의 인과관계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차원을 긍정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로 구분하였다. Ryff[40]는 심리적 복지감을 성공적인 노년을 나타내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로서 6개의 하위차원을 제시하였는데, 자기수용(self-acceptance), 타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의 통제(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의 성장(personal growth)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Desmarais와 Savoie[41]의 최근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신적 균형(mental balance), 사회적 참여(social involvement), 사교성(sociability), 자신과 사건에 대한 통제(control of self and events), 행복(happiness) 등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정서와 상반되는 부정적인 정서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radbuen[42]은 심리적 복지가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하고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와 비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인 판단을 심리적 복지라고 하였다. Bryant와 Veroff[43]는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로 이루어졌다고 정의하고 우울감과 불안감 및 생활만족도나 행복감을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Okun[44]은 심리적복지감을 “긍정-부정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

서 이루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했다. 황성용[36]은 긍정적 복지감을 생활만족으로, 부정적인 복지감을 고독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이선미[5]는 생활만족과 우울로 구분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하위요인을 행복, 삶의 만족, 자기평가의 정신적 건강(self-related mental health)로 구분하였고, 심리적 긴장(Psychological distress)을 억압된 증상(depressive symptom), 심각한 심리적 긴장(serious psychological distress)등으로 구분하였다[45].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이론들을 근거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전반적인 삶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의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정의하고, 삶에 대해 반응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복지감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부정적인 복지감으로 구분한다.

3. 노년기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련

노년기 부부관계는 정서적, 심리적인 변화뿐 만 아니라, 성적 친밀감, 상호 간의 배려 등 부부 간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다[33]. 노년기 부부관계(친밀감, 의사소통, 애정표현 및 여가공유)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영향관계 다룬 연구들은 희소하였다. 이들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indsor 등[46]은 중·노년기 2,235쌍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기평가 건강, 통제신념 그리고 관계 친밀도(relationship closeness)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선미[5]는 노년기 부부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의 친밀감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조아량과 박진경[47]은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부부는 서로 말할 때나 들을 때 혐오, 경멸, 분노 등의 감정을 담은 부정적 정서의 행동이 많고, 서로에게 만족스런 부부는 반응이 적거나 긍정적으로 듣는 모습, 격려, 인정과 같은 긍정적 언어자극이 많았다. 그리고 부부 간의 의사소통의 방식과 대응양상은 서로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최유호 등[48]은 노년기에 부부 간의 애정(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노화방지 및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신감의 회복과 일상생활의 만족도 향상은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Gierveld 등[49]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정서적, 사회적 외로움의 정도와 결혼의 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한 노인들의 20-25%에서 자주 대화를 하지 않고,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에게서 보다 강한 정서적·사회적 외로움이 나타났다.

여가공유와 심리적 복지감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14][5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우울증과의 관계에서 참가여부, 정도 및 활동에 참가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낮아지고, 여가공유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다[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및 심리적 복지감과의 차이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부부관계 변인과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에서 김혜선[51]은 성인식 및 성생활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성생활 만족과 배우자와의 성생활 대화에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은아와 이정우[28]도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이 의사소통 효율성 정도와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52], 우울 수준은 남편보다 부인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혔다[53]. Proulx 등[54]은 결혼의 질과 개인의 복지감(personal well-being)간의 관계에서 성(gender)이 조절역할을 하고, 결혼의 질이 개인의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에 따른 부부관계 변인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차이에서 김영나[31]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반면 농촌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은과 이수한[55]의 연구결과는 70대가 60대보다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김영혜[17]는 연령과 우울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Diener와 Suh[56]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쾌한 정서(pleasant affect)가 쇠퇴하고,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28][57]. 권중돈과 조주연[58]은 교육수준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높은 지위는 경제적 부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직업유무에 따른 부부관계 변인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차이에서 노년기에 일(work)과 심리적 복지감 및 삶의 만족도 간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59].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부관계 변인을 친밀감, 의사소통, 애정관계 및 여가공유 등으로 설정하였고, 심리적 복지감은 긍정적 복지감 및 부정적 복지감 등으로 구분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남녀 유배우자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여성이 266명(57.3%)으로 남성 198명(42.7%)보다 더 많았고, 연령대는 65-69세가 176명(37.9%), 70-74세가 122명(26.3%), 60-64세가 117명(25.2%), 75세 이상이 49명(10.6%)이었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45명(31.2%), 중학교 졸업이 135명(29.1%),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95명(20.5%), 대학교 졸업 이상이 89명(19.2%)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100-300만 원 미만이 168명(36.2%), 100만 원 미만이 145명(31.3%), 300-500만 원 미만이 100명(21.5%), 500만 원 이상이 51명(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266명(57.3%)으로 있다는 경우가 198명(42.7%)에 비해 더 많았고, 종교는 있다가 272명(58.6%), 없다가 192명(41.4%)이었으며, 자녀와 동거여부에서 함께 산다가 305명(65.7%), 함께 살지 않다가 159명(34.3%)이었다. 건강상태는 그저 그렇다가 201명(43.3%), 좋다가 150명(32.3%), 나쁘다가 113명(24.4%)이었으며, 경제상태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가 211명(45.5%), 그저 그렇다가 150명(32.3%), 좋다가 103명(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64)

변인	범주	빈도 (%)
성별	남성	198 (42.7)
	여성	266 (57.3)
연령	60-64세	117 (25.2)
	65-69세	176 (37.9)
	70-74세	122 (26.3)
	75세 이상	49 (10.6)
학력	초졸 이하	95 (20.5)
	중졸	135 (29.1)
	고졸	145 (31.2)
	대졸 이상	89 (19.2)
월평균 수입	100만 원 미만	145 (31.3)
	100-300만 원 미만	168 (36.2)
	300-500만 원 미만	100 (21.5)
	500만 원 이상	51 (11.0)
직업유무	있다	198 (42.7)
	없다	266 (57.3)
종교유무	있다	272(58.6)
	없다	192(41.4)
자녀동거여부	함께 산다	305 (65.7)
	함께 살지 않는다	159 (34.3)
건강상태	나쁘다	113 (24.4)
	그저 그렇다	201 (43.3)
	좋다	150 (32.3)
경제상태	좋지 않다	211 (45.5)
	그저 그렇다	150 (32.3)
	좋다	103 (22.2)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평구, 그리고 서초구 소재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10여 곳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년기 유배우자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2011년 6월 6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였다. 각 기관에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였고, 전체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결측치를 보인 36부를 제외한 464부(유효 응답율 92.8%)를 최종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설문지 답안을 엑셀에 직접 코딩하였고, 코딩한 자료는 SPSS 17.0으로 통계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같은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해서 산출하였다. 둘째, 개념변수인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수의 결정방식은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들을 선택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의 경우 0.5이상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뢰성분석에서는 신뢰계수가 0.6이상일 경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셋째, 응답자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산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하위요인으로 친밀감, 의사소통, 애정표현 및 여가공유 등의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심리적 복지감은 긍정적 복지감 및 부정적 복지감 등의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부부관계에 관련된 하위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소희[60], 박은아[61], 이선미[5]등의 연구를 토대로 친밀감, 의사소통, 애정표현, 여가공유 등에 관한 총 23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였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상반된 개념으로 구분하였던 연구를 토대로, Bryant와 Veroff[43] Okun[44], 황성용[32], 이선미[5]의 연구를 참조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인 복지감과 부정적인 복지감의 총 1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5점 Likert척도로 채택하였다.

이들 측정도구들은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자들의 반응과 의문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100부를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 직업유무 등의 총 4문항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역코딩한 문항은 없었으며,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서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노년기 부부관계 및 심리적 복지감

1.1 부부관계

노년기 부부관계의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23개 항목을 요인분석 한 결과, [표 2]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은 친밀감과 의사소통의 요인이 합쳐진 것으로서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거나 서로에게 정신적인 의지가 되며, 서로를 충분히 배려해 줄 뿐 아니라 매우 친하게 지내며,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거나, 생각이나 의견을 잘 이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친밀소통’이라 명명하였다. 따라서 친밀감과 의사소통은 상호관련이 있는 요인으로서 친밀하게 지낼 경우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공통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 부부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요인 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 (%)	신뢰 계수
친밀 소통	정신적인 의지가 되고 있다.	.802	4.676	22.266	.887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	.775			
	서로를 충분히 배려해 준다.	.761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673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상의를 하는 편이다.	.596			
	사소한 일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신경을 쓰는 편이다.	.593			
	서로 간에 매우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565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다.	.528			
애정 표현	서로에게 솔직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편이다.	.820	4.330	42.883	.895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796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785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705			
	서로에게 성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641			
	상대방이 슬플 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599			
여가 공유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784	3.492	59.510	.852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698			
	함께 외식하는 것을 좋아한다.	.643			
	주말을 함께 보내는 편이다.	.642			
	함께 여행가는 것을 좋아한다.	.627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많다.	.619			

요인 2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애정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성적으로 만족하고, 상대방이 슬플 때 사랑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관련되어 ‘애정표현’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부부가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취미생활,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여가공유’라 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59.510%였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친밀소통이었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부하량 0.5 이하를 보인 2개 문항(부부 간의 기분을 이해하는 정도와 서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정도)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부부관계의 3가지 구성요인의 신뢰계수가 0.895-0.852의 수준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심리적 복지감

노년기 부부의 긍정적 복지감과 부정적 복지감에 대한 총 14항목을 요인분석 한 결과, [표 3]과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특별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 있으며, 인생이 만족스러움은 물론, 삶에 보람을 느끼고 인생을 즐기며,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진행되는 편이어서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과 관련하여 ‘긍정적 복지감’이라 명하였다. 요인 2는 외로움을 느끼고, 모든 일이 하기 싫어지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으며, 마음이 우울하고, 잠을 설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 복지감’이라 명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61.483%였고, 긍정적 복지감이 부정적 복지감보다 설명력이 높았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든 항목이 요인값 0.5 이상을 나타내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의 2가지 구성요인의 신뢰계수가 0.882-0.905의 수준으로 문항의 신뢰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표 3.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계수
긍정적 복지감	삶이 재미있다고 느낀다.	.797	4.474	31.955	.905
	인생이 만족스럽다.	.791			
	내게는 특별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 있다.	.771			
	삶에 보람을 느낀다.	.756			
	인생을 즐기고 있다.	.752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뜻대로 진행되는 편이다.	.747			
	편안한 마음이 든다.	.737			
부정적 복지감	요즘에 부족 외로움을 느낀다.	.791	4.134	61.483	.882
	요즘 들어 모든 일이 하기 싫어진다.	.766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751			
	도대체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질 않는다.	.733			
	내 마음이 상당히 우울하다.	.708			
	요즘에 평소에 비해 말 수가 적은 편이다.	.700			
	요즘에 잠을 설치는 편이다.	.668			

2. 노년기 부부관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2.1 노년기 부부관계가 긍정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관계가 긍정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관계의 요인인 친밀소통, 애정표현, 여가공유를 독립변수로 하고, 긍정적 복지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건강상태($\beta = .195, t = 4.190, p < .001$), 경제상태($\beta = .291, t = 5.973, p < .001$), 종교유무($\beta = -.125, t = -3.084, p < .01$), 학력($\beta = .096, t = 2.302, p < .05$), 월평균 수입($\beta = .095, t = 2.104, p < .05$)이 긍정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고, 종교가 있으며, 학력과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인생이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낄 뿐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 드는 등 긍정적 복지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복지감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1.8%였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부부관계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긍정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제상태($\beta = .240, t = 5.691, p < .001$), 건강상태($\beta = .134, t = 3.297, p < .01$), 긍정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긍정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쳤던 학력, 월평균 수입, 종교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표현, 여가공유, 친밀소통 등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관계의 요인 중에서는 애정표현($\beta = .262, t = 5.334, p < .001$), 여가공유($\beta = .147, t = 3.033, p < .01$), 친밀소통($\beta = .126, t = 2.532, p < .05$)가 긍정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에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태가 좋고, 부부 간에 친밀하고, 소통이 높으며, 애정표현을 많이 함과 동시에 여가공유를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긍정적 복지감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애정표현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복지감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9.9%로 1단계보다 18.1%($\Delta R^2 = .181$) 증가하였다.

이는 부부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경우, 애정을 잘 표현하고 성적으로 만족할 경우, 함께 여가를 즐기고 공유하는 노년기 유배우자일 경우, 긍정적 복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부부관계가 긍정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033	-.777	-.007	.194
	연령	-.015	-.350	.038	1.008
	학력	.096	2.302*	.065	1.794
	월평균수입	.095	2.104*	.056	1.427
	직업유무 ²⁾	-.036	-.830	.010	.266
	종교유무 ³⁾	-.125	-3.084**	-.062	-1.753
	자녀동거 ⁴⁾	-.015	.375	.006	.186
	건강상태	.195	4.190***	.134	3.297**
	경제상태	.291	5.973***	.240	5.691***
부부관계	친밀소통			.126	2.532*
	애정표현			.262	5.334***
	여가공유			.147	3.033**
F		24.936***		39.491***	
R ²		.318		.499	
ΔR^2		.181			

* $\alpha < .05$, ** $\alpha < .01$, *** $\alpha < .001$.

주) 독립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인 경우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62]. 따라서 집단변수인 성별, 직업유무, 종교유무 및 자녀동거 등은 질적변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변수화하였다. 1)남자=1, 여자=0, 2)있다=1, 없다=0, 3)있다=1, 없다=0, 4)동거=1, 비동거=0.

2.2 노년기 부부관계가 부정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관계가 부정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건강상태($\beta=-.284, t=5.960, p<.001$), 경제상태($\beta=-.237, t=4.749, p<.001$), 학력($\beta=-.155, t=3.642, p<.01$)이 부정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지 않고, 학력이 낮을수록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으며, 보람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드는 등 부정적 복지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복지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8.5%였다.

표 5. 부부관계가 부정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074	-1.709	-.099	-2.454*
	연령	-.043	-0.973	-.054	-1.305
	학력	-.155	-3.642***	-.128	-3.218**
	월평균수입	.005	-0.107	.055	1.276
	직업유무 ²⁾	.075	1.681	.047	1.147
	종교유무 ³⁾	.062	1.478	.023	.598
	자녀동거 ⁴⁾	.012	0.284	.028	.742
	건강상태	-.284	-5.960***	-.222	-4.959***
부부관계	경제상태	-.237	-4.749***	-.209	-4.482***
	친밀소통			-.334	-6.071***
	애정표현 여가공유			-.126 .097	-2.322* 1.816
F		21.474***		25.579***	
R ²		.285		.389	
ΔR^2		.104			

* $\alpha<.05$, ** $\alpha<.01$, *** $\alpha<.001$.

주) 독립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인 경우는 종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62]. 따라서 집단변수인 성별, 직업유무, 종교유무 및 자녀동거 등은 질적변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변수화하였다. 1)남자=1, 여성=0, 2)있다=1, 없다=0, 3)있다=1, 없다=0, 4)동거=1, 비동거=0.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부부관계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건강상태($\beta=-.222, t=-4.959, p<.001$), 경제상태($\beta=-.209, t=4.482, p<.001$), 학력($\beta=-.128, t=-3.218, p<.01$), 성별($\beta=-.099, t=-2.45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요인 중에서는 여가공유를 제외한 친밀소통($\beta=-.334, t=-6.071, p<.001$), 애정표현($\beta=-.126, t=2.322, p<.05$)에서 부정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고, 학력이 낮으며 남성인 경우에 부부 간에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낮고, 애정표현이 적어 부정적 복지감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복지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38.9%로 1단계보다 10.4%($\Delta R^2=.104$) 증가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년기 부부관계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차이

노년기 유배우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성별, 학력 및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성별에 따른 차이

노년기의 성별에 따라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부부관계의 친밀소통($t=2.144, p<.05$)과 애정표현($t=2.127, p<.05$)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고, 부부관계 관련 모든 요인들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6.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요인		남성 (n=198)	여성 (n=266)	t	p
부부관계	친밀소통	3.31 ¹⁾	3.18	2.144*	.033
		.634 ²⁾	.657		
	애정표현	2.75	2.60	2.127*	.034
심리적 복지감	여가공유	2.98	2.90	1.181	.238
		.721	.753		
	긍정적 복지감	2.99	2.89	1.711	.088
	.651	.670			
부정적 복지감	2.81	2.82	-.175	.861	
	.688	.704			

* $\alpha<.05$.

¹⁾평균, ²⁾표준편차.

3.2 연령에 따른 차이

노년기 부부의 연령에 따른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

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7]과 같다. 부부관계에서는 애정표현($F=8.882, p<.001$), 여가공유($F=4.853, p<.01$), 친밀소통($F=2.637, p<.05$)에서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은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애정표현, 여가공유 그리고 친밀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애정표현 및 여가공유에 있어서는 70세 이상에 비해 60-64세의 집단이 서로에게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여가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나 [28], 정은과 이수현[51]의 연구에서 농촌의 여성들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60대 보다는 70대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랐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은 긍정적 복지감($F=3.978, p<.01$)에 있어서 70세 이상 집단에 비해 60-64세 집단에서 긍정적 복지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 복지감($F=4.354, p<.01$)에서는 60-64세의 집단보다 70-74세 집단이 더 낮은 평균값을 보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삶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표 7.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요인		60-64세 (n=117)	65-69세 (n=176)	70-74세 (n=122)	75세 이상 (n=49)	F	p
부부 관계	친밀 소통	3.37 ¹⁾ a .663 ²⁾	3.21a .601	3.16a .682	3.16a .672	2.637*	.049
	애정 표현	2.86a .801	2.74a .685	2.56ab .784	2.25b .750	8.882***	.000
	여가 공유	3.06a .795	2.99a .687	2.85ab .685	2.63b .828	4.853**	.002
심리 적 복지 감	긍정적 복지감	3.04a .656	2.98ab .659	2.80ab .669	2.77b .616	3.978**	.008
	부정적 복지감	2.62b .675	2.85ab .711	2.93a .698	2.82ab .609	4.354**	.005

* $p<.05$, ** $p<.01$, *** $p<.001$.

¹⁾평균, ²⁾표준편차.

a, b, c는 *scheff* 검증결과 .05 수준에서 유의함

3.3 학력에 따른 차이

노년기 부부의 학력에 따라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평

균점수를 산출한 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학력에 따른 부부관계에 있어서 친밀소통($F=10.126, p<.001$), 애정표현($F=6.027, p<.001$), 여가공유($F=7.081, p<.001$)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부부관계 변인과 긍정적 복지감에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부부관계 변인과 부정적 복지감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8.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요인		초졸 이하 (n=95)	중졸 (n=135)	고졸 (n=145)	대졸 이상 (n=89)	F	p
부부 관계	친밀 소통	2.97 ¹⁾ c .651 ²⁾	3.18bc .580	3.33ab .635	3.43a .678	10.126***	0.000
	애정 표현	2.38b .754	2.75a .706	2.75a .791	3.09a .797	6.027***	0.000
	여가 공유	2.65b .752	2.94a .641	30.3a .737	3.09a .797	7.081***	0.000
심리 적 복지 감	긍정적 복지감	2.62c .690	2.86bc .614	3.08ab .602	3.13a .669	13.683***	0.000
	부정적 복지감	3.15a .754	2.86ab .615	2.70bc .628	2.55c .711	14.351***	0.000

*** $p<.001$.

¹⁾평균, ²⁾표준편차.

a, b, c는 *scheff* 검증결과 .05 수준에서 유의함

3.4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

노년기의 직업유무에 따라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친밀소통($t=4.300, p<.001$), 애정표현($t=5.438, p<.001$), 여가공유($t=4.05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을 가진 그룹이 부부관계와 긍정적 복지감에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업이 없는 그룹은 부정적 복지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심리적 복지감에 있어서는 긍정적 복지감($t=4.659, p<.001$), 부정적 복지감($t=-4.658, p<.001$)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노년기 부부의 경우 직업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부관계 요인들과 긍정적 복지감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부정적 복지감은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9.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요인		있다 (n=198)	없다 (n=266)	t	p
부부 관계	친밀소통	3.39 ¹⁾	3.12	4.300***	.000
		.631 ²⁾	.643		
	애정표현	2.89	2.51	5.438***	.000
	.747	.743			
심리적 복지감	긍정적 복지감	3.10	2.82	4.058***	.000
		.710	.635		
	부정적 복지감	3.09	2.81	4.659***	.000
	.667	.634			
		2.64	2.94	-4.658***	.000
		.674	.687		

*** α .001.¹⁾평균, ²⁾표준편차.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60대 이상의 노년기 유배우자 464명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변인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및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 변인 및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친밀소통, 애정표현 및 여가공유 등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인들의 설명력은 높았으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친밀소통이었고, 부부관계의 3가지 구성요인들에 대한 문항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친밀감과 의사소통 관련된 문항들이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처럼 친밀소통의 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친밀감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친밀소통 요인은 친밀감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이라고 검증하였던 박은아, 이정우[25]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즉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을 때 상호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친밀함목과 의사소통의 항목이 친밀소통으로 묶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에 있어서는 긍정적 복지감과 부정적 복지감으로 구분되었고, 이들 요인들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문항의 신뢰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둘째, 노년기 부부관계가 긍정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

향관계에서 1단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회귀한 결과, 학력, 월평균 수입, 종교유무,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긍정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력과 월평균 수입이 높고, 종교가 있으며, 그리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인생이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낄 뿐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 드는 등 긍정적 복지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별, 연령, 직업유무 및 자녀와의 동거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변수가 긍정적 복지감과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추론은 조심스럽다고 하겠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부부관계 변인을 추가로 회귀한 결과에서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이, 그리고 부부관계의 요인 중에서는 친밀소통, 애정표현, 여가공유 등이 긍정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선미[5]의 노년기 부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노후에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태가 좋고, 부부 간에 친밀하고, 소통이 높으며, 애정표현을 많이 함과 동시에 여가공유를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긍정적 복지감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indsor 등[43]의 연구에서 관계 친밀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최유호 등[45]의 노년기 부부 간의 애정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여가공유가 심리적 복지감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아랑과 박진경[44], 이기영 등[14], 이선미[5]의 연구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에 긍정적 복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둘만의 애정표현과 사랑의 관계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서로가 따뜻한 위로의 말과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년기 부부관계가 부정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1단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가 부정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학력이 낮고, 건강상태와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고, 보람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드는 등 부정적 복지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별, 연령, 월평균 수입, 직업유무, 종교유무, 자녀동거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변수가 부정적 복지감과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추론은 조심스럽다고 하겠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부부관계 변인을 추가로 회귀한 결과에서는 성별,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이, 부부관계 요인 중에서는 친밀소통, 애정표현 등에서 부정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남성이면서 학력이 낮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부부 간에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낮으며, 애정표현이 적은 노인일수록 부정적 복지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Gierveld 등[46]의 연구에서 배우자와 자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성생활에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강한 정서적 외로움이 관찰되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선미[5]의 연구에서 여가공유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노년기 부정적인 복지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 간에 친밀감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 취미생활,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한 배우자 간의 인식의 변화와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노인 교육과 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및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년기 부부의 성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부부관계 요인과 긍정적 복지감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부정적 복지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은 부정적인 복지감을 더 인식하고 있는 여성배우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나[28], 김영혜[17], Diener와 Suh[56]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노년기에 남성배우자들은 여성배우자에게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사랑이나 애정관계에 대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년기 부부의 연령에 따른 부부관계에서는 친밀소통, 애정표현, 여가공유에서 집단별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은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친밀소통, 애정표현, 그리고 여가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애정표현 및 여가공유에 있어서는 70세 이상에 비해 60-64세의 집단이 서로에게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여가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나 [28], 정은과 이수한[52]의 연구에서 농촌의 여성들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60대 보다는 70대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나이가 높은 경우도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두 부부가 지속적인 농사일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더 부부간의 관계형성이 좋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도회지에서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적인 환경에 따른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복지감은 긍정적 복지감에 있어서 70세 이상 집단에 비해 60-64세 집단에서 긍정적 복지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 복지감에서는 60-64세의 집단보다 70-74세 집단이 더 낮은 평균값을 보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삶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와 긍정적 복지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점수가 낮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도 좋으며, 심리적 복지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아와 이정우[25], 정은과 이수한[52], 권중돈과 조주연[55] 등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도 좋으며, 심리적 복지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박은아, 이정우[25]의 연구와도 일치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노인

의 심리적 복지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높은 지위는 경제적 부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던 권중돈과 조주연[55]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직업유무에 따라 부부관계 변인의 친밀소통, 애정표현, 여가공유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을 가진 그룹이 부부관계와 긍정적 복지감에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업이 없는 그룹은 부정적 복지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노년기 부부의 경우 직업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부관계 요인들과 긍정적 복지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부정적 복지감은 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Deinner 등 [5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나이가 들어도 일이 있어야 되고 직업을 가질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을 통해 심리적인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결론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예비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부부 간에 상호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노후가 되면 둘만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그 이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 관계유지가 힘들어진다. 노후에는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경우 심리적 복지감은 낮아져 우울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

둘째는 부부 간에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결혼생활 동안에 가사 일이나, 자녀문제, 집안 대소사 문제 등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 이는 오랜 결혼생활 속에서 고착화 되어버린 언어적 환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서로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격려하는 말, 사랑이 담긴 진지한 말이 부부 간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생활은 노년기에

한다고 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미리 50대 이전부터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가를 찾아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하는 많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현재 보통의 부부들을 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에 익숙하지 않아 갈등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동참하는 여가생활에 적극 시간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다가오는 노년기에서 심리적 복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부부들이 함께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시설이나 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의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각 구마다 1개소 정도밖에 없는 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들도 멀어서 이용이 불편하여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대상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유배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노년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간에 나타난 차이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연구의 병행이 필요하며, 지역이나 집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윤경, 정경희, 염지혜, 오영희, 유혜영, 이은진,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분석 및 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9, 2010.
- [2] M. Perlmutter and E. Hall, "Adult Development and Aging,"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1985.
- [3] 이윤로, 유시순, "노년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 연구, 제1권, 제1호, pp.1-21, 2004.
- [4] 권오균, 허준수,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47권, pp.7-30, 2010.
- [5] 이선미,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6] 임선영, 김태현, "노년기 부부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한국노년학, 제21권, 제3호, pp.111-128, 2002.
- [7] 김재엽, 김동배, 최선희,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회, 제18권, 제3호, pp.103-122, 1998.
- [8] 정동섭, "중년기 이후의 부부사랑",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2권, pp.156-179, 2006.
- [9] 김소진,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1087-1105, 2009.
- [10] 김희주, 주경희,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1권, pp.125-158, 2009.
- [11] 조혜경,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12] 현경자,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1권, pp.158-193, 2005.
- [13] 김태현, 전길양,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17권, 제2호, pp.167-182, 1997.
- [14] 이기영, 김외숙, 구혜령,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3호, pp.113-126, 1995.
- [15] 서병숙, 김수현,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제20권, 제1호, pp.55-67, 2000.
- [16] 유시순, "노년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 사회사업 연구, 제6권, 제1호, pp.123-140, 2009.
- [17] 김영혜,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pp.1-30, 2004.
- [18] 백경숙, 권용신,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제39권, pp.33-52, 2008.
- [19] 이해경,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46권, pp.315-336, 2009.
- [20] E. H. Erikson, J. M. Erikson, and H. Q. Kivnick,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New York: Norton, 1986.
- [21] D. J. Levinson,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1978.
- [22] www.nps.or.kr/jspage/info/easy/easy_04_02.jsp.
- [23] 홍숙자, 노년학개론, 하우:서울, 2007.
- [24] Brody, E. M. Long-trem care of older people: Apractical guide,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1977
- [25] 김유경, 김양희, 임성은,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 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7, 2009.
- [26] R. J. Sternberg,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Vol.93, No.2, pp.119-135, 1986b.
- [27]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6권, 제1호, pp.91-104, 2006.
- [28] 박은아, 이정우,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7권, 제2호, pp.25-44, 2003.
- [29] 김경신, 이선미,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31-54, 2001.
- [30] 박의순,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대 부모 애착, 부부 애착과 부부 사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31] 김영나,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2] 박지은, “노인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3] 김윤정, 서신영, “중, 노년 간 부부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 제25권, 제1호, pp.87-102, 2005.
- [34] 이혜자, 김윤정,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 제24권, 제4호, pp.197-214, 2004.
- [35] 신상식, 최수일,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10.
- [36] 황성용,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여가활동 서비스가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37] W. Wood, and N. Rhodes,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106, No.2, pp.249-264, 1989.
- [38] E. Diener, “Subject Well-Being”, *The Science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Vol.37, pp.11-58, 2009.
- [39] 박영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여가만족 및 심리적 복감과 인과관계 연구”, 농촌사회, 제20집, 제2호, pp.233-263, 2010.
- [40]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t Is?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b.
- [41] V. Dagenais-Desmarais, and A. Savoie, “What is Psychological Well-Being, Really? A Grassroots Approach from the Organizational Scienc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Online First, Vol.21, 2011(7).
- [42] N. Bradbue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1969.
- [43] F. B. Bryant and J. Veroff,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3, No.4, pp.653-673, 1982.
- [44] M. A. Okun, “Life Satisfaction,” G. L. Maddox(Eds),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 pp.339-401, 1987.
- [45] K. D. Lincoln, R. J. Taylor, D. H. Chae, and L. M. Chatters, “Demographic Correlat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istress Among Older African Americans and Caribbean Black Adults,” *Best Pract Ment Health*, January: Vol.6, No.1, pp.103-126, 2010.
- [46] T. D. Windsor, L. H. Ryan, and J. Smith, “Individual Well-being in Middle and Older Adulthood: Do Spousal Beliefs Matter,”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Vol.64, No.5, pp.586-596, 2009.
- [47] 조아랑, 박진경, “정신과 외래에서 살펴본 노년기 부부관계”, *경희의학*, 제23권, 제2호, pp.112-117, 2007.
- [48] 최유호, 김윤정, 김용미, “시설노인의 성태도, 성욕구가 성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226-236, 2010.
- [49] J. J. Gierveld, M. B. van Groenou, A. W. Hoogendoorn and J. H. Smit, “Quality of Marriages in Later Life and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64, No.4, pp.497-506, 2009.
- [50] 이연숙,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우울증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2호, pp.343-364, 2008.
- [51]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관계성 연구”, 한국노년복지학회, 제38권, pp.311-338, 2007.
- [52] 정인숙, “노인의 원인귀속유형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생활만족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53] 이영자,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54] C. M. Proulx, H. M. Helms, and C. Buehler, "Marital Quality and Person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9, pp.576-593, 2007.
- [55] 정은, 이수한,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부부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제1호, pp.243-275, 2007.
- [56] E. Diener, and E. Suh,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17, pp.304-324, 1998.
- [57] 박혜성,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58]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 [59] E. Diener, Eunok M. Suh, R. E. Locas, and H. L. Smith,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125, No.2, pp.276-302, 1999.
- [60] 박소희, "기혼여성의 여가활용특성과 정서표현성, 부부공감, 친밀감 및 여가공유의사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61] 박은아,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62] 허명희, *수량화방법 I·II·III·IV*, 자유아카데미: 서울, 1999.

저 자 소 개

조혜숙(Hye-Suk Cho)

정회원



- 2005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유아교육학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사회복지정책 석사)
- 2011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교육학, 여가활동.

최수일(Soo-Il Choi)

정회원



- 1974년 2월 : 연세대학교(공학사)
- 1997년 2월 : 연세대학교(공학석사)
- 2007년 2월 : 호서대학교(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2005년 5월 ~ 현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관심분야> : 경영전략, 조직론, 리더십, 노인복지